

데스크시각

김우성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를 방문했을 때 마침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 발사일이라 올랜도를 비롯한 인근 지역은 관광객들로 넘쳐났다. 1만5천 관람석은 모두 예약돼 있었다. 하는 수 없이 NASA(미 항공우주국) 전용 TV 중계방송 청취로 만족했다. 이튿날 우주센터를 찾았을때 전날 발사 탓인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기술 종속, 7차례 발사 연기

‘우주센터 운영 초기인 1970년 올랜도 인구는 40만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현재 160만명에 육박한다. 우주센터를 필두로 한 관광산업은 오늘날 플로리다의 최대 산업이 되었다. 관광분야에서 매년 78만개 일자리 창출, 연 매출 370억달러에 이를 정도다.’

지난 2002년 필자가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기획보도한 ‘우주시대 선진모델을 찾아’ 시리즈 중 일부다. 전자는 케네디우주센터와 인근 관광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실상이야 후자는 그로인한 지역의 발전상이다.

세상 ‘우주’ 시리즈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25일 ‘우주발사체 자력 발사’에 ‘절반의 성공’(나로호 탑재위성 정상궤도

국민적 염원도 그만큼 컸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은 실패를 떠나 바로 발사 연기를 거듭한 ‘나로호의 눈물’이다. 실패야 각고의 연구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겠으나 기술 종속에 따른 설움은 그 자립을 이루기 전엔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업에 착수한 2002년 8월 나로호의 개발기간은 2005년 12월까지로 돼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와 기술협력계약을 맺는 데에만 2년여가 소요됐다. 이때도 2007년 10월로 발사시기를 명시했지만 협력업체 지연으로

다. 우리가 오는 2018년 한국형 우주발사체 KSLV-2 발사때까지 우주기술을 국산화해야 하는 당위성이기도 하다.

시너지효과 기반구축을

또 우주센터를 지역·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미국은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 우주센터 인근에 우주항공산단을 조성했다. 관련 대학의 육성은 물론 관광·컨벤션산업을 한꺼번에 일깨워 부를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관련 산업 시설이 전무 고층, 경남 사천, 전북 군산 등으로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센터 진입도로, 관광시설 등이 낙후하기 짝이 없다.

“전남을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전남에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은 공약의 이행이 아니라라도 우주센터 시너지효과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나로호의 눈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을 꽃피우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다. 혹 정부가 호남의 우주센터로 여겨 지원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편집국장〉 wskim@kwangju.co.kr

잊지 말아야 할 ‘나로호의 눈물’

진입엔 실패)을 거두며 우주개발사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이다. 이유같이 않은 이유로 발사 연기하길 무려 일곱차례, 기술 속도는 앞서 당하는 실용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또 미국과 달리 연관산단과 체류형 관광지 개발, 도로 등 인프라도 거의 갖춰지지 않아 지역·국가 경제발전에 시너지효과도 내지 못했다.

우성이 정상궤도 진입에 성공했다하면 우리는 세계 10번째 ‘우주클럽’ 가입과 우주강국으로서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나아가 국가 위상도 크게 높일 수 있어

악년 12월로 미뤄졌다. 이후에도 준비 철저를 이유로 올 2분기 발사에 이어 7월말도 연기됐다가 11월로 또 늦춰졌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에서 러시아는 ‘기술적 이슈’를 이유로 또다시 연기를 통보해왔다. 구체적 원인을 캐물자 ‘단순 측정 오류’라고 답변해왔다. 우호(?)당한 기분을 지을 수 없다.

우리는 나로호 발사에 8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또 지난해에는 최초 우주인 배출 사업에 250억원 이상을 러시아에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발사체 제공이나 발사 과정에서 러시아는 고자세로 일관했

시설

나로호 ‘절반의 성공’ 우주강국 밑거름으로

어제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고층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됨으로써 우리도 우주 강국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발사에는 성공했으나 과학기술위성 2호를 탑재 예정된 우주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해 국민들의 경남 사천, 전북 군산 등으로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센터 진입도로, 관광시설 등이 낙후하기 짝이 없다.

“전남을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전남에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은 공약의 이행이 아니라라도 우주센터 시너지효과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나로호의 눈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을 꽃피우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다. 혹 정부가 호남의 우주센터로 여겨 지원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편집국장〉 wskim@kwangju.co.kr

나로대로 기술적 진전을 이뤄낸 것 또한 사실이다. 위성 발사를 시도한 나라들이 첫 발사에 성공한 비율이 27%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우주개발을 무리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우주개발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크다. 우주개발의 길이 얼마나 멀고 힘든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나로호 발사는 준비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 잔담에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은 공약의 이행이 아니라라도 우주센터 시너지효과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나로호의 눈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을 꽃피우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다. 혹 정부가 호남의 우주센터로 여겨 지원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전남을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전남에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은 공약의 이행이 아니라라도 우주센터 시너지효과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나로호의 눈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을 꽃피우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다. 혹 정부가 호남의 우주센터로 여겨 지원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편칼럼

이병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 자신의 잠재적 모습을 떠올려보라는 내용이 있다. ‘당신의 잠재력에 참석한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시기를 바라는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종류의 공헌이나 업적을 그들이 기억해주시기를 바라는가?’를 생각해볼만한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하며 시작하라’는 말은 최후 순간에 갖고 싶은 이미지, 모습 그리고 패러다임

탄탈은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키츠는 ‘여기, 이름을 물 위에 새긴 사람이 잠들다’라는 묘비명을 남겼다. 우리나라 문인들 중에도 의미 있는 것이 많다. 천상병 시인은 “나 하늘로 돌아 가리라”이며, 괴짜스님 종광은 “괜히 왔다 간다”로 정말 괴짜 묘비명을 남겼다. 조병화 시인은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 나왔지만, 이제 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이다. 퇴계 이항 선생은 숨지기 나흘 전에 4

묘비명

을 메시에 검토하는 기본과 표준으로 삼을 것을 뜻한다. 최후의 순간을 마음 속에 분명하게 간직하면 어떤 일을 하여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써보는 것은 “끝을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과 같다. 묘비명은 말 그대로 고인을 기념하기 위해 묘비에 명문이나 시문을 새긴 것을 말한다. 그 표현 방식이 다양하여 서양에서는 에피그람이라는 문학 장르로 발전하기도 했다. 묘비명은 세상에 건네는 마지막 인사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인 24구로 스스로 묘비명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나면서부터 크게 어리석었고 자라면서 병이 많았네. 중년에 어찌 학문을 좋아하게 됐고 말년에 외람되게 벼슬이 높았네~근심 속에 즐거움 있고 즐거움 속에 근심 있네. 저 세상으로 떠나며 생을 마감하는데 다시 무엇을 구할 것인가?” 대유학자다운 묘비명이다. 부엉이 바위에 서 몸을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비명은 문인 10명이 애절한 마음을 담아 지은 것이었으나 ‘아주 작은 비석’에는 “대통령 노무현” 여섯 글자만 새겨져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온 국민의 애도 속에 지난 8월 23일 국장으로 엄수됐다. 추모에 이념 지역이 없었다.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민주와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봉태운 김 전 대통령은 그의 마지막 일기에서 “살아온 길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후회는 없다”고 했다. 이희호 여사는 “화해와 용서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이 김 전 대통령의 유자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묘비명으로 또 한 번의 가르침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보혜양조 이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편상’을 수여 합니다. 은편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여성운전자에 사고 책임 덮어 씌우는 행태 ‘한심’

추석이 한 달 조금 더 남은 터라 며칠 전 고향으로 발초를 하러 가던 길이었다.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차가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2차선으로 주행하는 데 1차선의 트럭이 깜빡이도 안 넣은 채 느닷없이 옆에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터졌다며 흥분했다.

리를 치기 시작했다. 서로 보험사 직원을 불러 시비를 가려보자는데 그 사람은 무작정 우겼다. 말로 안 될 것 같아 경찰에 사고 처리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하여 보니 트럭에게 잘못이 8대2로 많다는 판정이 나왔다. 남자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가 난 뒤 상대 운전자가 여성일 경우 무조건 덮어씌우려고 한다. 상대가 약한 여성이라 해서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풍토는 버려야 한다. ▲유남규·광주시 동구 계림2동

기고

전주연



광주 교통사고율이 4년째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해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가 156.4건으로 전국 평균을 50% 가까이 웃돌았다. 또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6명으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를 지키려는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구는 광주의 중심축이자 대표 관문지역으로 민선 4기 들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행복도시로 새롭게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도 다른 어느 지역 보다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난 24일 광주 5개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서부교육청과

광주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광주는 지금 문화수도를 표방하며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세계광엑스포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는 등 세계속의 1등 광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 등 각급 유관 기관 및 단체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읍무운전 안하기를 비롯해 안전띠 착용과 무단횡단 안하기, 겸·침·빨지 않기 등의 기초질서 4대 덕목 지키기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선진교통질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문화도시나 국제도시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초질서다. 기초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무질서가 당연하게 이어지고 또 다른 중대 범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교통질서는 지역의 역량과 주민들의 문화수준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교통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귀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지역의 이미지도 실추되게 된다. 광주가 교통사고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과 누가 보든 안보든 간에 스스로 교통질서

만만 아니라 광주선진교통문화범시민운동본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서구는 이를 토대로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하는 한편, 주민교육과 홍보활동 강화, 교통질서 계도 및 단속활동 전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줄이기에 힘써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이 벗어나 ‘나부터’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초질서 4대 덕목 지키기에 적극 동참할 때 우리 고장은 교통사고 1위의 오명을 씻고 아름다운 선진교통문화의 꽃을 활짝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서구에서 이번이 뜨겁게 달구진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의 열기가 광주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전국으로도 널리 퍼져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구청장〉

농민 올리는 ‘원산지 허위표시’ 뿌리 뽑아야

얼마 전 한 업체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 회사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만에 수출했다고 한다. 대만에서 중국산으로 밝혀졌고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면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은 수입을 안 할 것이다. 이 피해는 전부 누가 보나 모두 농민들의 몫일 뿐이다.

국내이라고 속이고, 녹용과 장뇌삼은 500억 원어치나 밀수하다 적발됐더니 말문이 막히고 울화통이 터진다. 정부는 밀수 상습범과 금액이 많은 경우엔 강력히 처벌해 주기 바란다. 또한, 이들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씩을 자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상습범과 금액이 많은 사건은 구속하고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해 주기를 바란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금증세로 돌아선 가계빚 예상롭지 않다

가계 빚이 다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데다 소비심리가 회복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금리 기조가 수개월 안에 끝날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지나친 가계 빚은 ‘이자폭탄’으로 돌아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2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 14조1천억원(2.1%) 증가한 것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7%가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저금리 기조가 수개월 안에 끝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자폭탄에 따른 가계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기금도 올해 말 가계부채의 위험수준이 ‘카드 버블’ 때와 맞먹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697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들어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가계 빚은 700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부채는 4천184만 원으로, 1분기보다 84만 원이나 불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가계 부실화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가계도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채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가계 빚은 1분기에 경기 침체 여파로 5년9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無等鼓

박정희의 군사혁명위원회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서울 퍼린 시절의 얘기가 1961년 민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DJ는 공수단이 버티고 있는 국회의사당에 나타난다. 국회의사당에 의원들의 의원등록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주위의 불안한 시선에 대해 “...이 의원등록은 군사통치를 반대하는 나의 최초의 행동입니다...”라고 일갈한다.

는 것은 이것 자체가 특혜입니다...우리나라 주주들은 항상 100%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축적해왔던 자본은 하나도 안 쓰고 은행보고 돈 달라는 겁니다. 누구든 이런 특혜만 얻는다면 하룻밤 사이에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온 ‘김형욱 회고록’의 일부다. 이는 박정희의 군사통치에 처음 공식적으로 저항한 사건이 됐으며, 이후 DJ는 십수년 동안 박정희의 가장 강력하고 운명적인 적수가 된다. ‘행동하는 양심’은 조선의원 시절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한

은, 행동하는 양심에 따라 실천하는 지성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수사(修辭)가 무색할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DJ는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대중에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1965년대로 넘어가 회고록은 이어진다. 박정희의 후원을 등에 업은 쌍용그룹 김성곤과 DJ는 월간지 ‘신동아’에서 실적을 벌인다. ‘외자도인 자제를 자기신용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국가가 지불보증을 해준다

그러나 그가 지난 23일 85세를 일기로, 역사의 편에 섰다. 그는 갖지만, 아주 간절은 아니다. 여전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산자들에게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우리 곁에 있다. 구 전남도청 별관에 붙은 대형 초상화 처럼... /O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赫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7-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디자인국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사회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